



박소현의 섹.시.토크

부부라는 인연으로 만나 어느덧 십 년.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서로의 식성과 취향을 맞추는 것은 기본이고 상대 표정과 말투만으로 기분이 어떤지 한눈에 파악하기도 한다.

J가 잠자리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차린 건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이들 부부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섹스를 한다.

진실을 알게 된 것은 컴퓨터가 켜져 있는 틈에 우연히 남편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게 되면서였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남편이 자신에게 불만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남편이 언제나 더 원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J가 그쪽으로는 그다지 욕구가 강한 편이 아니었다.

미안해 할 줄 알았던 남편은 되려 화를 낸다. 부부생활의 고민을 터놓은 게시판인데 뭐가 어찌냐고.

밤에 가까이 다가 가면 '절로 가, 절로 가!' 그랬잖아 자주 잠자리 거부하면 스님이 돼 버릴꺼야

나 화냈잖아. 내 욕구에 관심 가져준 적 있어? "당신처럼 욕구가 강하지 않은 걸 어쩌해."

빨난 남편이 갈 곳은

"당신이 예전에 했던 말 기억 안 나? '서른 넘으면 강해진다.', '애 낳으면 강해질거래.' 서른 넘은 지 언제고 애 낳은 지가 언제야? 변한 거 있어?"

남편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도 마음 한쪽에선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인가 싶다.

그런데 남편은 빨이 어지간히 난 모양이었다. 혼자 씩씩거리더니 급기야는 이렇게 외쳤다.

J는 웃음이 팍 터져 나왔다. 그런데 왠지 웃어서는 안 될 것 같아 이를 꼭 물었다. 빨난 엄마가 집도 나가는 세상인데 빨난 남편이 짤에 못 간다는 보장이 있나.

검색절정 키워드

검색

거침없는 원더걸스 'Nobody' 선풍적 인기

박지성의 시즌 첫 곡이 네티즌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다.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은 지난 21일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첼시와의 경기에서 전반 18분 올 시즌 자신의 첫 골이자 프리미어리그 통산 8번째 골을 성공시켰다.

박지성이 마지막으로 첼시전에 출전했던 게 지난 2006년 4월29일. 그만큼 첼시전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던 박지성은 모처럼 선발출전한 경기에서 첼시를 상대로 첫 득점포를 가동시키며 네티즌 사이에 화제가 됐다.

가요계의 요정 원더걸스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22일 온라인 음원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4번째 프로젝트 앨범을 발매한 원더걸스가 타이틀곡 'Nobody'의 선풍적인 인기로 온라인 차트를 평정했다.

음원 공개 직후 각종 차트 순위에 이름을 올

린 원더걸스는 음원 공개 3일 만에 음원 차트 1위를 휩쓸며 무서운 저력을 과시했다.

8월 베이징 올림픽으로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중국이 이번 9월에는 '멜라민 분유' 사태로 세계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중국에서 독성물질 멜라민이 함유된 불량분유가 유통되면서 4만 여명의 영아가 신장결석 등의 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제조업체와 정부의 நட장 대처로 피해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게다가 한국 유명 식품기업이 OEM(주문자 상표부착방식)으로 중국에서 제조·판매한 유명 과자에서 멜라민이 검출되는 등 멜라민 공포가 확산, 인터넷에 먹거리에 대한 네티즌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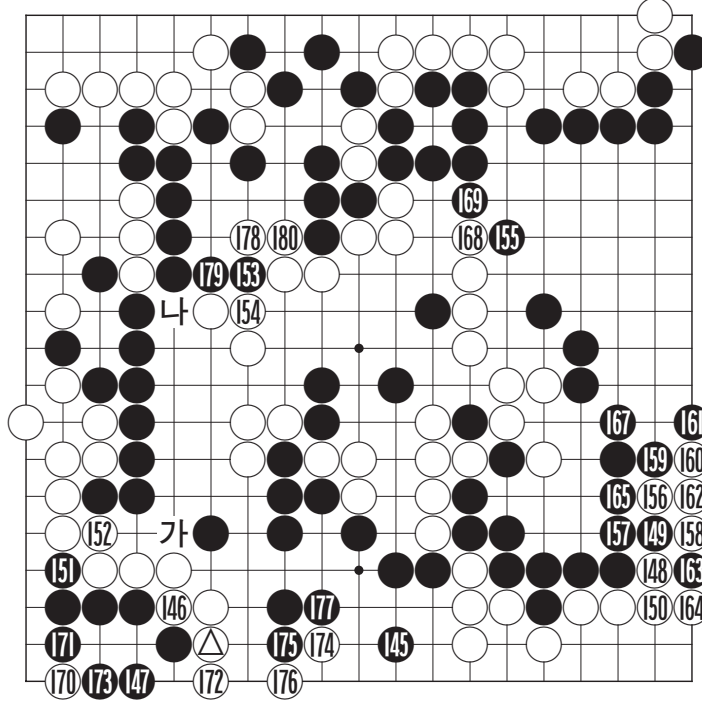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인기 여자그룹 원더걸스의 새로운 컨셉 사진.

제17회 光日盃

백의 승리 확정

개인전 결승전 10보 (145~180)

白 박광주 5단 黑 김영수 5단 (포스코) (전남교사회)



상변을 알기 쉽게 정리한 다음 박광주 5단은 백 △로 하변을 막았는데 이곳이 기분좋은 선수골 내기였다.

그런 다음 박 5단은 반상회대로 보여지는 우하귀를 148로 짚어 있었는데 이 수로는 먼저 '참고도'의 백 1로 두어 우변을 삭감할 곳이었다.

쉽게 둔 것이나 1로 두었다면 혹은 위쪽에 끊기는 약점이 있어 2 이하 6으로 넘을 수밖에 없는데 백 11까지를 선수해 둔 다음 우하귀로 달려갔으면 대차였다.

김영수 5단이 이를 간파하고 짚싸게 155로 달려갔으나 우하귀에는 또 백 156으로 붙이는 수가 남았다.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엘도라도리조트

굿모닝 잉글리쉬 <1154>

Why is John grounded? 왜 존이 금주령에 묶였지?

- A: Why is John grounded? B: He left last night without permission. A: I guess he will get used to asking before he leaves B: He'd better, or he's going to spend the rest of his life in his room.

- A: 왜 존이 금주령에 묶였지? B: 어제 밤, 허락없이 외출을 했거든. A: 자리를 뜨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습관을 들여야할 것 같아. B: 그래야겠지, 아니면 방에서 평생을 보내야 할 걸.

- * ground : 구속당하다, 묶이다 * permission : 허락, 승낙 * 그녀는 일찍 귀가하는 습관을 가질 거야 = She will get used to coming home early.

오하오우 니혼고 <1154>

また腕(うで)が上(あ)がったんですね。 솜씨가 더 늘었군요

- A: 今日もお菓子(かし)作(つく)ってきました。 B: あ、美味(おい)しい。また腕(うで)が上(あ)がったんですね。 A: え、頑張(がんば)りました。

- A: 오늘도 과자 만들었어요. B: 아, 맛있어요. 솜씨가 더 늘었군요. A: 네, 열심히 만들었어요.

腕(うで)가上(あ)がる : 직역하면 "팔이 올라가다"지만 腕(うで)는 역량, 실력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주량이 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쑹구위 <231>

吃什么? 무엇을 먹습니까?

- A: 小白兔吃什么? xiǎobáitu chī shénme 차마오뎬이루 쉰 쉰리 B: 吃草。chī cǎo 초 먹어 A: 哪里有草? rǎn yǒu cǎo 나리 유우 초 A: 房子外边有草。fángzi wáibian yǒu cǎo 방조 외변유우 초

草 [cǎo] 황 박길쭉 外边 [wáibian] 바깥쪽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옆)> ☎ 383-1605

리빙 센스

자세 바로잡기 ②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될 때 속이 더부룩하고 가슴이 답답하다면 구부정한 자세가 원인일 수 있다. 매일 등을 펴는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다.

-이불을 들굴고 되도록 딱딱하게 말아 등에 대고 눕는다. 이때 목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고 10분 정도 자세를 유지한다.

<허리가 아할 때 건강할 허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 더불어 매일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스트레칭을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된다.

-요를 깔고 반듯하게 눕는다. 숨을 내쉬며 양다리를 편 상태로 15~20도 들어올린다. 이때 고개는 뒤로 젖힌 상태에서 손을 귀 근처에 대고 상체도 함께 든다. 5~10초간 10~20회 정도 실시한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6일(음 8월 27일 己卯)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and their daily fortune. Signs include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dvertisement for Derma Plast skin care products. Text: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 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한예원(韓睿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